

# 한국전쟁기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문화적 개입: 러시아측 자료를 중심으로\*

강 인 구\*\* · 조 한 범\*\*\*

- |                 |                |
|-----------------|----------------|
| I. 서론           | IV. 소비에트신보의 활동 |
| II. 소련문화원의 활동   | V. 결론          |
| III. 조소문화협회의 활동 |                |

---

## Abstract

---

### Cultural Intervention by the Soviet Union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ocus on Russian Data

Since withdrawal of troops, Soviet Union's direct intervention through its military command was reduced but its cultural intervention toward North Korea was expanded, which continued during the Korean War. Since the Korea Liberation, Soviet Union's ideology and culture have made great influence ove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gime. To that end, the Soviet Union utilized the Culture Center,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and the Soviet Shinbo in North Korea, thus exercising diverse cultural influence over the country.

Soviet Union's influenc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ulture over North Korea continued

despite the Korean War. Even during the Korean War, a variety of projects to spread Soviet Union's culture and propaganda for its ideology done through the Culture Center,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as well as the Soviet Shinbo was developed in North Korea. These projects continued and expanded in a prompt manner in line with the North Korean invasion to South Korea.

These mean Soviet Union's dominant influence toward the North through its cultural apparatus, as well as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its socialist culture duri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regime.

**Key Words:**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cultural influence, cultural intervention, culture center, Korean War, Soviet Shinbo

---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9-BM1021).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한국전쟁기 소련과 스탈린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설과 결부되어 주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세계전략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반도 내부의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남침설과 스탈린의 의도를 동시에 설명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에 의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했으며, 훈련받았고 통제를 받았다는 점,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의 보호와 은밀한 원조아래 남한을 장악하고, 그 결과로 소련은 한국에 있어서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왔다.<sup>1</sup>

비밀이 해제되어 수집된 러시아 문서보관소 문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직접적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소련과 스탈린의 역할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49년 스탈린을 수반으로 한 소련 지도부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허용치 않기 위해 일련의 가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비밀이 해제된 문서보관소 문서들로는 소련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한공산화를 꾀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조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두는 스탈린의 승낙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전쟁 발발이후 스탈린은 사태의 경과를 주의깊게 파악했으며, 주요 군사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이후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및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조정 기능이 북경으로 이전되었을 때에도, 스탈린이 최종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스탈린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하였고, 중요한 결정들을 채택할 때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그들의 요청과 제안에 호의적으로 응했다는 사실들이 러시아의 문서보관소 문서들에 나타나 있다.<sup>2</sup>

미국이나 중국의 대규모 참전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소련의 참전사실도 소련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한국전쟁기 소련 조종사와 고사포병들은 미 공군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3년 동안 1,300기가

<sup>1</sup> 라종일 편,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예진, 1991), pp. 72~73.

<sup>2</sup> 유리 바실예비치 바닌, “역사의 가혹한 교훈-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역사와 현실』 40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1), pp. 270~271.

넘는 미국과 그 동맹국 항공기들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소련 항공대도 동일 기간의 전투에서 항공기 335기와 조종사 120명을 잃었다. 한국전쟁 전 기간에 걸쳐 총 299명의 소련 군인이 사망하였다. 소련 항공대와 그 예하 지대들은 비교적 협소한 구역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했다.<sup>3</sup>

이와 같은 논의들은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논증하는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정치군사적 측면 이외의 문화적 측면을 통한 소련의 북한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미미한 실정이다. 소련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체제를 구축하고, 친소적인 문화적 기반이 북한 내에 자리잡기를 원했다. 따라서 소련은 소련군의 철수상황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북한 내에서 전개했으며, 이는 비밀이 해제된 러시아측 자료에 의해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소련의 노력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민군의 남한지역 점령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신들의 문화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할 경우 북한체제형성 초기에 소련은 북한에 대해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구 소련측 자료<sup>4</sup>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소련외무성 산하기관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북한내 활동실태와 그 의미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소련문화원의 활동

### 1. 소련문화원의 설립

1946년 1월 27일 소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지역내 평양, 함흥, 원산에 소련문화원의 개관을 계획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소연방외무성 산하의 대외선전기구으로써 소련과 관계를 맺고 있던 외국의 ‘문화협회’나 ‘친선협회’를 통해 대외 문화교류의 촉진과 소비에트 문화의 선전사업을 수행했다.<sup>5</sup>

<sup>3</sup> 위의 책, p. 273.

<sup>4</sup> 본 논문에서 인용된 구 소련의 자료는 주로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ГАРФ)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소장자료를 활용했다.

소련정부는 북한 내 소련문화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아울러 북한 내 소련군사령부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도록 계획하였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과 요원편성계획 및 활동에 필요한 선전 자료의 준비와 수송을 담당했으며, 북한내 소련군사령부는 문화원 건물의 시설과 장비 등 필요한 물자의 공급 및 군요원 중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요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46년 말 이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 소련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안과 요원편성계획이 작성되었지만,<sup>6</sup> 재정문제로 인가되지 않았으나 1947년 7월 21일에 문화원 설립에 관한 예산지출이, 1947년 10월 18일에 요원편성 계획안이 승인되었다.<sup>7</sup>

1947년 여름 소련정부에 의해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 지출이 책정됨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실상, 소련문화원의 설립을 위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소련정부의 설립 결정이 있는 이후 1년반 이상 지난 1947년 말에야 시작될 수 있었으며, 1948년 7월 25일 시급한 대로 건물보수작업을 마친 평양 소련문화원이 최초로 개관되었다.<sup>8</sup> 소련정부는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촉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소련문화원을 이데올로기문화센터로써 활용하였다. 개관된 평양 소련문화원에서는 강연회, 보고회, 야회, 영화감상 등의 사업수단을 통하여 소련의 국가와 사회제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였다.

소련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 내 소재한 소련문화원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소련 문화와 과학발전을 선전하였다. 예를 들어 1949년 8월 말에 개관된 원산문화원에서 진행된 강연프로그램 가운데는 원자에너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50년 3월초 원산에 소재한 소련문화원장 빼로프에 의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보고된 1949년도 4/4분기 원산문화원 사업결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당시 강연이 원산교원대학 이태현에 의해 이루어졌고, 강연노트의 제목은 「원자에너지」였다.<sup>9</sup>

소련문화원은 강연회, 보고회 등의 형태로 북한에서 정치교양문화사업을 전개했

<sup>5</sup> РГАСПИ. Ф.17 оп.128 д.463 л.31.

<sup>6</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09 л.5~10.

<sup>7</sup>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사연구』 90 (서울: 한국사연구회, 1995), p. 405.

<sup>8</sup> 위의 책, p. 414.

<sup>9</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9 л.99~117.

다. 평양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인의 생활, 그 문화, 정치와 경제 등에 관해 ‘목요일 강연회’를 매주 실시하였다. 1948년 3/4분기에만도 25회에 걸쳐 다양한 강좌가 실시되었는데, 300여명의 북한인테리들이 참석하여 청강하였다.<sup>10</sup>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의 정치나 과학에 관한 인식확대를 위한 강의록, 보고서, 자료, 소논문, 사진, 그 밖의 정보자료 등을 조소문화협회에 보급하였다.<sup>11</sup> 당시에 소련문화원에서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축하야회 등을 보고회와 검해 실시하였다.

평양 소련문화원은 도시의 기업소나 농촌의 부락 등지에서 설명회를 포함한 영화 상영을 통해 선전사업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소련문화원의 영화상영은 대중문화 선전사업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소련문화원의 영화상영은 북한주민들에게 소련의 문화, 과학, 예술 등과 접촉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상영의도가 이데올로기 전파목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의 지적 경향을 자극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소련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련영화수출공사는 영화필름을 상업적으로 임대하기 전에, 문화원에 제공하여 조소문화협회의 간부들에게 무료로 시사회를 가지도록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 2. 한국전쟁 초기의 소련문화원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 내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시상황 하에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기 때문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혼돈된 상황적 조건 때문에 소련문화원의 일상적 활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북한 문화활동가들과 소련문화원 간의 연락도 두절상태에 빠졌다. 전시라는 정세변화는 소련문화원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적 조건에 따라 소련문화원도 곧 새로운 활동방향을 설정,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발발이라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소련문화원의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북한군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사업목표가 되었으며, 특히 인민군이 장악한 남한지역은 소련문화원으로서의 사업대상지역의 새로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전초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인민군의 빠른 남하과정과 발 맞추어, 소련문

<sup>10</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17 л.2.

<sup>11</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3 л.55.

회원은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간 남한지역에서도 소련의 노동자 생활, 문화, 과학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전쟁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에 이미 평양의 소련문화원은 남한 각 지방에서의 조소문화협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선전자료들을 조소문화협회측에 제공했다.<sup>12</sup> 남한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의 참여에 있어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이와 같은 물자지원이라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조소문화협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당시 소련문화원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실례를 살펴보면, 소련에 대한 강연과 좌담회자료의 인쇄 발송, “소련-전세계 평화와 안전의 보루”와 “소련인민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 등 소련선전과 관련된 전시회의 서울 개최, 서적·플래카드·복사물 발송, 당시 소련에 의해 ‘해방지역’으로 인식된 웅진지역 등에 대한 약단 파견(11명으로 구성) 등이었다.<sup>13</sup>

1950년 7월 평양소련문화원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련문화원은 자체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역량의 강화라는 방침과 아울러 조소문화협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업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문화원 주도로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에 대한 선전용 플래카드 3만점을 제작하여 남한지역으로 우송하였다. 또한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협조하에 소련문화원은 인민군 동원령을 지원하기 위해 몇 편의 군영화를 상영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고취에 관한 좌담회들을 개최했다.<sup>14</sup>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사상·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소련문화원은 월간지 『조선여성』에 2차대전 당시에 소련여성의 영웅적인 투쟁에 관한 기사를 집중 게재하였다.<sup>15</sup> 물론 이는 북한여성의 동원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소련문화원은 북한내무성 예술공연단의 전선파견활동에도 관여했으며, 특히 조선인민군 병사와 장교들을 위해 소련군가 활용방법과 연주악보 등을 지원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쟁직후 소련문화원 건물이 일부 파손된 상황 속에서도 “고리끼의 삶과 업적”, “소련어린이의 휴가”, “소련작가 갤러리” 등 전시회를 통해 이전처럼 문화행사

<sup>12</sup> 당시 제공된 자료들은 “레닌의 삶과 업적”, “스탈린”, “소련최고회의 선거제도”, “고리끼의 삶과 업적” 등의 전시회 자료와 “레닌의 삶과 업적”, “스탈린의 삶과 업적”, “소련포병”, “스탈린헌법-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 “조국전쟁과 청년동맹” 등 강연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6).

<sup>13</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7.

<sup>14</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8.

<sup>15</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9.

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소련문화원의 영향력이 당시 수행된 북한내 문화사업과 대중사업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자체 활동보고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전쟁발발이후 남한에서 인민군 점령지역이 빠르게 확대되자 평양 소련문화원은 남한에서 새로운 활동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 소재한 소연방대의 문화교류협회 지도부도 새로운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북한내 소련문화원 활동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전시 상황에서도 인민군 동원령, 정치이데올로기 전파, 순수 문화활동 등 다각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특히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남한지역 즉,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 소련문화원의 건립을 계획하였다. 당시 평양 소련문화원은 남한주민의 반소 인식이 미군정의 선전선동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도시에 소련문화원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 Ⅲ. 조소문화협회의 활동

#### 1. 한국전쟁 이전의 조소문화협회

해방국면에서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의 중요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중정치사업의 수행이었다. 1945년 9월 한 달만해도 12편의 영화와 8회의 음악회가 개최되었다.<sup>18</sup>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으로 인한 상황에서 소련군과 북한주민들 사이 친선·우호관계의 강화는 북한내 정치사업과 대중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조건이었다.

해방직후 평양에서 ‘붉은군대 환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학자, 교사, 예술가, 법률가, 종교인 등이었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일반인들의 정서에서 일제의 청산, 새로운 선진문화의 확립, 소련인들 생활의 이해, 북한과 소련의 친선강화 등이었으며, 얼마 뒤 이 위원회는 ‘붉은군대 친선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sup>19</sup>

<sup>16</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40.

<sup>17</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41.

<sup>18</sup>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 Востоке(극동의 해방사절단) М. 1976, p. 200.

이후 1945년 11월 12일 평양에서 ‘朝蘇文化協會’가 발족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의 발기총회가 열려 위원 25명, 감사 3명 참여 13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황갑영, 부위원장에 김봉철이 추대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활동목표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문화를 창건하며, 조선문화와 전 세계 각국 특히 소련문화를 연구하여 상호교류함을 일대기치로 표방”하는 것이었다.<sup>20</sup>

사실상, 북한 내에 소련문화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수행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그 협회 기관지인 ‘조소문화’의 창간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소련 문화의 수용에 있었다.<sup>21</sup> 이 같은 소련문화 수용은 1948년에 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공연단이 구성되어 38선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부는 소련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문화공연단의 순회공연을 준비, 조직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련과의 친선강화에도 주력했다. 예를 들어 조소문화협회는 소련군 철수와 관련, 다양한 친선행사를 주관했다.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은 소련병사들을 위한 선물준비, 소련군부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야회활동, 소련군과 소련에 관한 주제로 북한주민들과의 좌담회, 소련에 관한 전람회 개최, 소련의 가요 암송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1948년 말에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에 관한 강연회와 좌담회를 6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이 중 16차례의 강연회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 발송된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이용되었다. 이 강연회의 주제는 “스타하노브 운동과 사회주의적 경쟁”,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31주년”, “소련—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루” 등이었으며, 17,0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참석하여 청강하였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자료를 이용한 22회에 걸친 강연회와 좌담회가 방송되었고, 그 주제는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31주년”, “스탈린 헌법—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등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선전뿐만 아니라, 러시아 고전을 보급하기 위한 방송도 있었다.<sup>22</sup>

<sup>19</sup> 강인구,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7), p. 163.

<sup>20</sup> 『정로』, 1945. 11. 14.

<sup>21</sup> 『조소문화』, No. 1 (1946), p. 3.

<sup>22</sup>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p. 424.



소련 문화원의 개관 이전까지 조소문화협회는 모든 선전활동을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협력하여 전개하였다. 소련문화원이 설립된 후에 주로 조소문화협회는 북한내 소련문화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활동을 추진하였다. 당시 소련 연주자의 순회공연, 소련문화원의 영사기들을 이용한 영화상영, 소련문화원 주도 하의 경축기념일 행사사업 등이 진행되었으며, 소련문화원은 직접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대중 조직으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 2. 한국전쟁기의 조소문화협회

전시 상황 하에서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은 변화된 상황에 상응해 재조직될 필요성이 있었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선동의 확대·강화가 조소문화협회의 주요한 활동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 후방지역에서 대중사업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정치선동의 기본방향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수호하기 위해 소련인민이 보여준 영웅주의, 용맹, 자기희생 등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한국인에게 미국을 침략자로 각인, 증오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애국주의를 고무시키는 것이었다.<sup>23</sup> 1950년 8월중 조소문화협회 활동은 특히 개전 이후 2개월 간의 정세보고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는 강연회나 전시회, 영화상영, 러시아어강습, 조소반 활동 등의 방식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민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는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회들이 개최되었다. 강연회의 주된 내용은 소련의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소련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연회의 주제들을 나열해 보면, 소련-세계평화의 전사, 소련문화-세계최고 진보문화, 소련인민의 사회주의문화, 소련 콜호즈농민의 생활과 노동, 소비에트나라의 여성, 소련청소년의 애국주의, 세계대전 이후 소련경제와 문화의 복구와 발전 등에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이 강연사업은 경기도당위원장 허정숙을 책임자로 추진되었다.<sup>24</sup>

서울지역에서는 박길룡의 책임하에 소련사회 발전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전시회 및 사진컬렉션이 열렸다. 전시회의 주제들은 이전에 북한 각 지방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레닌의 생애와 업적’, ‘스탈린의 생

<sup>23</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7.

<sup>24</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2.

애와 업적', '소련의 건축', '소련의 경제', '소비에트나라의 여성', '소련의 스포츠', '소련 어린이의 휴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전쟁기에 남한주민들에게 소련영화예술의 우월성을 알릴 목적으로 '레닌', '레닌과 10월혁명', '봄', '석화', '무지개' 등이 극장과 이동식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서울과 지방도시에서는 러시아어강습회가 조직되었고, 우선 관공서 관료와 문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러시아어학습이 실시되었다. 개전이후 점령된 남한지역에서 소련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었으며, 서울에는 소련도서를 장서로 하는 도서관의 설립과 소련 사회주의 제도, 문화, 생활 등을 선전하기 위한 라디오방송국의 개국 등도 계획되었다.<sup>25</sup>

북한문화계 지도자들은 전쟁시 파괴된 제반시설 복구를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물자지원을 요청하였다. 주로 조소문화협회는 남한주민 교양을 위해 소련에서 제공된 선전물자와 기구들을 이용하였다.

조소문화협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홍군'이라고 불렀으며, 전쟁과정에서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조소문화협회의 경우 지부직원 97명 가운데 13명이 전사했고, 21명이 실종되었다. 1950년 12월말 평양으로 후퇴이후, 조소문화협회는 도·군단위 하부조직을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기존의 협회 직원 60%가 부재한 상태였으며, 1951년 초에 7개 도단위 협회와 98개 시군단위 하위지부가 재조직되었다.<sup>26</sup>

연합군 폭격과 연합군의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지면서 북한내 조소문화협회 각 지부의 시설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따라서 조소문화협회의 각 지부 복구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1951년 1월 22일 조소문화협회 중앙상임위원회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 도·군·읍 단위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전쟁발발이후 6개월 동안에 조소문화협회의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되었다. 또한 하부단위지부의 조직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안 등도 협의되었으며, 중앙상임위원회가 각 지방으로 실무책임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1951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도의 읍단위지부에서는 열성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에 북한내 5개 도지부장과 53개 시·읍지부장 등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예를 들자면, 황해도 경우에 각 단위지부장 19명 가운데 18명이 새롭게 임명되었다.<sup>27</sup>

<sup>25</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5~46.

<sup>26</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0 л.53~55.

1951년 3월말경에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7군데와 시·군 87개의 협회지부가 조직을 완료하게 되었다. 그 외 38선에 접경하고 있는 2개 군 단위 지부는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조직을 복구하기 불가능하였다. 각 단위별 하부 조직의 복구가 시도되기는 했지만, 그 회원수를 전쟁 이전과 비교한다면 왜소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었다. 해주지부 경우에 개전 이전에는 12,000명이던 것이 단지 2,075명 정도였고, 원산지부 경우에 28,000명이던 것이 5,000명, 평양지부는 67,000명에 이르던 회원수가 4,368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주민들의 반미경향과 아울러 친소성향이 확대되었다.<sup>28</sup>

조소문화협회 대중사업은 전시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사업방식은 강좌, 좌담회, 전시회, 라디오강좌, 영화 등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협회측에서는 소련인민의 투쟁, 전쟁 등에서 영웅적인 경험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강좌 토론의 주제들도 “소련문화와 평화를 위한 투쟁”, “내전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와 영웅들”, “평화 감시자로서 소련군”, “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은 승리하였는가?”, “평화 호위병으로써 소련공군”, “평화 호위병으로써 소련탱크부대” 등이 주종이었다.<sup>29</sup> 1951년 개최된 강좌는 총 56,615회, 좌담회 284,508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좌 또는 좌담회에 연간 동원된 주민 수는 400~500만 명에 달했다. 1952년에도 개최된 강좌 횟수는 96,275회, 좌담회는 248,693회에 달했다.<sup>30</sup> 조소문화협회에 의해 개최된 전람회의 경우, 1951년 602건에 불과했으나 1952년에는 56,338건으로 급증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의 다큐멘터리, 과학 및 예술영화 등을 활용하여 1951년에 총 2,780회, 1952년에 5,457회의 영화상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전쟁기간에 북한에서 약 30여 편의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영화제작의 형편은 시작단계이었지만, 다큐멘터리 “북한”, 예술영화 “남쪽의 빨치산”은 이미 소련에서도 상영된 바 있었다.<sup>31</sup>

1952년 2월초 개최된 조소문화협회 확대간부회의에서 1951년 사업결과보고와 향후과제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이 간부회의에서는 1952년 협회사업 가운데 중공업, 광업, 운수업, 분야에서 협회활동을 강화시키는 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

<sup>27</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2.

<sup>28</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203.

<sup>29</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4.

<sup>30</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2.

<sup>31</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2~3.

되었다. 또한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의 전후복구 성공사례를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데 주력하였다.<sup>32</sup> 이와 같은 점들은 한국전쟁후 복구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문화협회의 전람회 개최활동도 한국전쟁중 계속되었다. 조소문화협회 도지부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로부터 지원된 물자를 토대로 정기전람회와 순회전시회 등 29,000여 회를 개최하였다. 조소문화협회 자체의 준비로 개최된 전시회는 15,000여 회에 달했다. 당시 “소련에서 평화건설의 성공”에 관한 사진 4,186장이 이용되었고, “소련에서 운하와 발전소 건설”에 관한 사진전시회가 8회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지하철정거장”에 관한 사진전시회 7회, “소련인민들의 생활”에 관한 포스터 6,780장, 러시아와 소련의 화가들의 복제작품 3,180개 등이 전시되었다. 시·군 단위지부에서는 사진전시회 742회를 주최하였으며, 550,360여명이 관람했다. 조소문화협회는 사업전개과정에서 소련의 역사적 기념일 등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레닌서거 2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지역에서 5,600여 개소 대소 군중집회를 조직하여 687,380여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소련군 창설 34주년 기념일에도 북한 내 각 시, 부락, 또는 군부대 등지에서 7,850여 회 걸쳐 집회를 조직하여 760,380여 명을 동원시켰다.<sup>33</sup>

조소문화협회는 라디오방송도 선전수단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조소문화협회 주관으로 1952년 1월~3월 기간중 12회에 걸쳐 라디오좌담회가 방송되었으며, 주제는 “불멸의 지도자 레닌”, “위대한 공산주의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련의 경제문화협정체결 3주년기념” 등이었다.<sup>34</sup>

조소문화협회는 러시아어 교육강좌와 학습반 조직에도 주력했다. 1952년 1/4분기의 경우 협회주관으로 66개 학습반이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당시 거의 모든 중요 민간업체와 기구에는 러시아어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정도였다. 당시 조소문화협회를 중심으로 280여 개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강좌와 클럽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1952년 상반기 동안에만 4,300여 명이 러시아어 교육강좌를 수강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러시아어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 학습교재 10,000권을 간행하였으며, 이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었다.<sup>35</sup> 북한측으로

<sup>32</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2.

<sup>33</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4.

<sup>34</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3.

<sup>35</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6.

서도 러시아어 교육은 경제,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련의 선진경험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상황 하에서도 조소문화협회는 기관지의 출간을 중단하지 않았다. 일간지 『조소문화』와 월간지 『조소친선』은 당시 임화가 편집주간으로 있었고, 각각 1만 부씩이 인쇄되었다. 기관지 출간의 주된 목적은 인쇄매체를 통한 조소 양국민간 우호친선의 선전이었고, 당시 선진국인 소련사회의 발전된 문물을 소개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동유럽국가의 선진경험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 조소문화와 조소친선에 게재된 내용물의 90% 이상은 소련의 정기간행물에 이미 실렸던 논문기사들을 번역한 것들이었다.<sup>36</sup>

1951~1953년 동안에 소련국제서적협회는 북한에 서적 6,483,100권과 정기간행물 147,700질을 제공하였다. 동 기간에 소련 내에서도 40여종의 북한작가들의 작품들이 출간되기도 하였다.<sup>37</sup>

## IV. 소비에트신보의 활동

### 1. 소비에트신보의 창간과 성격

소비에트신보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가 북한지역에서의 문화선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49년부터 평양에서 발행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1949년 1월 6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지역에서 한국어 신문인 『쏘베트신보』를 발행하도록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9년 2월 2일부터 평양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1주일에 2회 50,000부의 소비에트신보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sup>38</sup> 당시 소비에트신보 편집장 카두린의 견해는 이 신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카두린에 의하면, 이 신문은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실행되는 ‘민주개혁’ 과정을 이데올로기적,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예를 통해 이와 같은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sup>39</sup> 이는 소련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북한 내 선전과 북한사회주의 체제형성의

<sup>36</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7.

<sup>37</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10.

<sup>38</sup> РГАСПИ. ф.17 оп.128 д.699 л.3.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신보 편집국과 인쇄소 직원은 이전에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발행된 ‘조선신문’의 편집국과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소련군 장교나 한국인 인쇄노동자들로 충원되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신문의 성격상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선전하기 위해 창간되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도 이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1949년 2월 소비에트신보 기사의 주제별 계획안에 의하면,<sup>39</sup> 2월 2일자 신문에 개재될 기사 가운데, 사설란에 “진보적인 전 인류의 선봉으로써 소련”, 영광의 소련군 연대기란에 “스탈린그라드 방어전/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패전 6주년”, M. 페트로브, 우리 달력란에 “천재적인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브”, 주제란에 “이것은 단지 소비에트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몰로도프 연설 삽화, “문화적인 국가로 신장하는데 있었어 소련과 경쟁하기를 원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다면, 스스로 나서 보시오!”, 편집기사란에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소련의 투쟁” 등이었다.

북한은 소비에트신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스탈린과 소련의 발전 경험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체제형성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소련측의 해답들이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소련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 문제, 마르크스-레닌의 이념 등을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에 ‘인민민주주의 권력’을 세우는데 북한지도부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2. 한국전쟁기의 소비에트신보

한국전쟁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신문발간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1951년 한 해 동안만 폭격 횟수가 1,096회에 달할 정도였다. 1951년 1월 12일과 2월 22일 폭격 이후에는 평양에 위치한 신문사 건물과 제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6월 31일 폭격 때는 신문사편집서기가 사망하였다.<sup>41</sup> 따라서 1951년 1월에 신문사는 기존 시설물과 자재 등을 거의 소실한 형편이었으며, 당시 편집국의 사정도 비슷하여, 정규직원 24명 가운데 단지 10명만이 복귀할 수 있었다. 우선 소련대사관은 신문사 책임자로 있던 카두린에게 시급히 신문사 복구를 지시하였

<sup>39</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24 л.113.

<sup>40</sup> РГАСПИ. ф.17 оп.128 д.699 л.4.

<sup>41</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4.

고, 인쇄소장 이 비탈리(고려인: 이전에 조소석유회사 근무)와 경리계장 최 페.엘. (고려인: 이전에 평양소련중학교 근무)을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시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에브이(B.H. Разуваевый)는 신문사의 복구와 북한주민을 위한 소련신문으로써 신보의 재간행을 명령하였다.<sup>42</sup>

북한주재 소련대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양에 신문사 재건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복구가 진행중이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인쇄소시설의 이용이 결정되었다. 당시 소비에트신보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인쇄하던 각 지방도시 인쇄소와 조소문화협회 인쇄소를 통해 발간되었다.

1951년에 소비에트신보사는 노동신문사의 인쇄소 시설을 이용하여 신문 발간을 정상화하였다. 양측 신문사 간에 약정이 체결되었고, 소비에트신보사 측은 1호, 51,800부를 발간하는 데 10,000원을 북한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sup>43</sup> 1951년 1월에 신문사는 신보를 1회 인쇄하였으나, 2월에 4회, 3월중에 5회, 4월부터는 신문사가 거의 정상화를 회복하여 8~9회를 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소비에트신보는 정기적으로 인쇄발간될 수 있었다. 8월에는 계획된 부수인 51,800부를 인쇄할 수 있었다. 1951년 한 해 동안에 소비에트신보는 88회 걸쳐서 발간되었으며, 총 부수가 300만 부에 육박하였다.<sup>44</sup> 이는 소비에트신보가 당시 전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폭넓게 보급된 일간지였던 것을 의미한다.

전시기간에 소비에트신보의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련인들의 경제 및 정치투쟁에서 레닌-스탈린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선전, 둘째,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에 비해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소련인민의 성공적인 경험, 소련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등 여러 분야의 발전, 소련정부의 레닌-스탈린 민족정책 등의 선전, 셋째, 소련의 도시 농촌, 공장 기업, 소호즈, 콜호즈 등지에서 소련인민의 전후복구 성공담의 선전, 넷째, 세계대전 기간에 전선과 후방에서 소련인민의 전승업적의 선전, 다섯째, 북한주민 대상으로 소련 문학, 예술, 음악 등의 대중화 선전, 여섯째, 소련정부의 대외정책과 새로운 세계대전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소련인민의 반대 투쟁의 선전, 일곱째,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문화생활의 발전과 새로운 민주

<sup>42</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2.

<sup>43</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52.

<sup>44</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8.

주의 정체의 달성, 그리고 이를 위한 소련의 원조 등에 대한 선전, 여덟째, 소비에트 신보 매호마다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인민의 관심과 소련인민들의 미국-영국 간섭자들에 대한 한국인민의 증오와 투쟁에 대한 동조 지지의 선전 등이 그것이다.<sup>45</sup>

1951년 5월까지 소비에트신보는 북한의 우편기구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신문사 양자 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근거해서 다른 북한내 출판물과 동일하게 체신부 출판국을 통해 배포되었다.<sup>46</sup> 1951년 8월의 경우 소비에트신보는 51,800부 인쇄되었으며, 평안남도-7,200부, 평안북도-7,170부, 자강도-3,708부, 황해도-7,520부, 강원도-4,500부, 함경남도-6,527부, 함경북도-7,243부, 평양시-7,243부, 조선인민군 정치참모국-900부가 배포되었다.<sup>47</sup> 이는 당시 소비에트신보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이 배포되지 못하는 지역까지 배포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소비에트신보사 주최로 평양시와 각 도 군 부락 별로 소비에트신보 독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이 같은 독자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 신문사는 각 지방의 사회단체와 당조직, 특히 조소문화협회 지부들의 지원을 받아 독자편지를 통해 북한 전 지역의 독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1951년에 평양시에서 3차례 독자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2월 28일 개최된 평양시 및 근교 소비에트신보 독자대회는 도당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업체와 사회단체 당조직에서 112명이 참석하였다.<sup>48</sup> 신보사 편집국으로 보내진 신문에 관한 비평내용은 보통 북한사회에서 소비에트신보의 대중성,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소련인민의 생활을 알리는 데 주요한 매체임을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당시 문화선전부장 허정숙은 자신의 독자편지에서 “소비에트신보는 미국-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수호투쟁을 전개하는 인민에게 도덕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sup>49</sup>

소비에트신보사 편집국에서는 그 직원들의 정치이념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시하의 한국 정치상황에 관한 정규적인 정치학습을 실시하였다. 편집국 직원 가운데 14명은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 서문” 등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자율 학습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은 이론가와 함께 정치경제학, 볼셰비끼공산당사, 소

<sup>45</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9~10.

<sup>46</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4.

<sup>47</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5.

<sup>48</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5~36.

<sup>49</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6.



련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치이념을 고양시켰다.<sup>50</sup>

당시 북한정부는 중요 언론매체이자 대중지였던 소비에트신보에 대해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시도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소비에트신보에 대한 북한정부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쏘베트 신보는 쏘련의 선진적 사회주의 농업을 소개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그러나 이 농업관계의 대부분의 기사는 기술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전문적을 치우치고 폴호즈 소개에 있어서는 그의 성과를 표시하는 숫자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실제 농민독자들에게 애독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쏘련의 문학예술부문에 대하여…쏘베트신보가 북소(조선방대외문화교류협회: 필자 주)의 기관지인 자기의 성격에 비추어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일반문화관계 기사가 적게 취급되고 있다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sup>51</sup>

당시 북한정부는 소비에트신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쏘련의 선진문화 소개는 특수 신문으로서 자기 성격을 한층 더 살릴 것. 대체로 편집방향에 있어 자기성격을 살려왔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순전한 정치신문으로 편집됨을 볼 수 있으니, 그 실례로 1월 30일부 신문은 1~3면이 레닌서거 27주년 보고로 편집되고 4면에 순전한 시사보도 몇 건이 게재되었을 뿐이다. 다른 실례로서는 10월 7일부 신문은 대일 강화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술한 소련대표 그로미코의 연설이 신문 4면 전체를 차지하여 정치신문으로서도 볼 수 없는 기형신문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 자기 성격을 살리기 위하여는 중요한 보고나 연설이라도 정치에 관해 이상 간단히 요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취급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선동원들이 손쉽게 담화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의 편집방침을 취할 것. 쏘련의 평화적 건설기사와 문화관계기사를 단편적인 것보다는 체계가 구비된 특집형식으로 편집하여 수준 낮은 선동원들이 자신의 종합 정리치 않아도 그대로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자료가 되도록 기사를 조직함이 요망된다

3. 숫자에 관한 문제. 건설사업기사 사업총결기사와 성과를 자랑하는 기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숫자의 정확성을 기할 것은 물론 수준의 낮은 독자를 위하여 도표와 그래프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sup>52</sup>

당시 조소문화협회는 소비에트신보의 활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협회는 각 단위조직들의 ‘조쏘반’에서 반드시 신문을 구독하도록 지도했으며, 신

<sup>50</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46~47.

<sup>51</sup>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19~120.

<sup>52</sup> “1951년도 발행 쏘베트 신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선전성, 1952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11~129).

문이 배포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회람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당시 협회산하 18,689개의 조소반 모두가 소비에트신보를 구독했다. 따라서 소비에트신보는 “오늘 후방에서 싸우는 생산노동자들과 근로농민들에게 광범히 읽히고 있으며, 사무원 인텔리겐차들에게도 사업상 넓게 보급되고 있다. 협회각급단체 강사들은 자기들의 강연회 자료를 작성할 때 소비에트신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sup>53</sup>

한국전쟁 종전후 북한정부는 소비에트신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소비에트신보는 조선신문 당시로부터 자기사업을 종결 지을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고상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하에 조소 당국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하며 맑스 레닌주의 선전과 선진적인 소련의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 풍부히 소개하여주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소련인민들이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각 분야에서 쟁취하고 있는 거대한 성과들과 고귀한 경험과 저명한 창의고안들을 널리 소개 선전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복구 건설사업에 많은 방조를 주었다…특히 소비에트신보는 소련 인민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국내외의 온갖 적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고상한 애국주의 및 영웅주의와 소비에트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그 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르고 있는 소련인민들의 생활모습들을 다각도로 소개하여 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일층 제고시켰다.”<sup>54</sup>

## V. 결 론

소련군의 철군이후 소련군사령부를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축소되었던 반면에 문화적 개입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이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으며, 소련은 북한 내에서 소련문화원, 조소문화협회, 그리고 소비에트신보 등을 활용,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련의 문화분야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련의 북한체제형성에 대한 문화적 개입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를 중심으로 소련문화원과 조소문화협회, 소비에트신보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sup>53</sup> 리기영, “소비에트신보에 대한 조소문화협회 각급단체들의 리용정형 보고서,” 1952년 1월 17일(Г 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37~146)

<sup>54</sup> 1954년 8월 19일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13차회의 결정서 “소비에트신보 사업에 대하여.”

있다. 북한에서 소련문화원의 설립이전에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문화 선전활동은 주로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이후 문화원이 직접 조소문화협회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소련문화원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북한지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련문화원의 중요한 과제는 소련과 북한 간의 문화교류활동을 촉진, 강화하고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중앙본부로 위치하는 데 있었다.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의 국가체제나 사회제도와 관련한 강연회, 보고회, 좌담회, 야회 등의 정치선전사업이 조직되었고, 영화감상, 사진전람회, 씨름활동, 음악회 등의 대중문화사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의 소련문화원을 통하여 소련대외정책의 선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서 미국식 제국주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기구로서 활용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중, 소련문화원과 조소문화협회, 그리고 소비에트신보는 전시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사업과 이데올로기 선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의 남한지역 점령상황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소련이 북한체제의 형성기, 특히 문화기구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자, 동시에 소련 사회주의문화의 북한전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